



2012년 12월 18일

투자전략 Daily

투자전략 | 노근환 ☎ 3276-6226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기술적분석 | 김철중 ☎ 3276-6247
계량/파생 | 안 혁 ☎ 3276-6272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크 레 디 트 | 김기명 ☎ 3276-6206



• 투자전략

미국 태양광업체, 시스템 설치 중심으로 성장

• 이머징마켓 동향

경제공작회의 폐막, 상해지수 강세 유지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대양전기공업 외 5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LS외 5종목

• 산업/기업분석

여행업, 엔터테인먼트.레저, 반도체, 자동차,

KB금융, SK텔레콤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2/10(월)	12/11(화)	12/12(수)	12/13(목)	12/14(금)	12/17(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57.42	1,964.62	1,975.44	2,002.77	1,995.04	1,983.07
	등락폭	-0.03	7.20	10.82	27.33	-7.73	-11.97
	등락종목	상승(상한)	364(8)	385(3)	467(8)	381(5)	310(4)
		하락(하한)	465(7)	417(6)	330(4)	410(5)	501(3)
	ADR	84.70	88.61	91.74	98.99	102.93	96.06
	이격도	10 일	100.94	101.10	101.33	102.38	101.66
		20 일	102.27	102.45	102.79	103.86	103.10
	투자심리	60	60	70	70	70	60
	거래량 (백만 주)	361	400	453	414	346	362
	거래대금 (십억 원)	3,607	4,427	4,561	5,894	4,250	4,204
코스닥	코스닥지수	489.59	481.59	485.33	490.15	491.65	485.48
	등락폭	0.37	-8.00	3.74	4.82	1.50	-6.17
	등락종목	상승(상한)	412(8)	306(3)	497(5)	635(9)	514(6)
		하락(하한)	509(10)	622(16)	408(5)	280(2)	390(2)
	ADR	78.42	79.51	83.81	91.68	98.23	90.35
	이격도	10 일	98.92	97.54	98.48	99.59	100.06
		20 일	98.74	97.44	98.37	99.39	99.60
	투자심리	60	60	60	60	60	60
	거래량 (백만 주)	296	346	323	286	332	310
	거래대금 (십억 원)	1,450	1,596	1,444	1,323	1,403	1,328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876.8	1,296.7	1,021.1	330.0	91.7	269.1	54.8	20.6	182.3	36.0
	매도	1,903.2	1,138.9	1,134.4	187.9	148.2	351.5	64.8	40.4	250.2	54.1
	순매수	-26.4	157.8	-113.3	142.1	-56.5	-82.4	-10.0	-19.7	-67.8	-18.1
	12 월 누계	-1,780.7	2,371.3	-464.6	-7.0	76.6	-344.9	-9.8	-74.1	156.4	-126.0
	12 년 누계	-14,048.6	15,504.0	3,454.9	1,552.5	2,733.8	-5,189.3	73.2	424.6	3,416.1	-4,910.3
코스닥	매수	1,215.6	49.9	62.7	10.7	8.0	21.9	5.2	2.8	11.7	16.6
	매도	1,166.7	79.9	78.3	14.8	9.5	26.9	4.0	3.8	16.7	19.9
	순매수	48.8	-30.0	-15.6	-4.1	-1.4	-5.1	1.1	-1.0	-5.0	-3.2
	12 월 누계	105.3	-33.9	-115.6	-38.9	6.1	-89.6	-21.7	-5.9	23.3	44.1
	12 년 누계	1,302.7	8.8	-517.0	8.4	86.1	-637.3	-293.5	-39.6	341.0	-794.6

미국 태양광업체, 시스템 설치 중심으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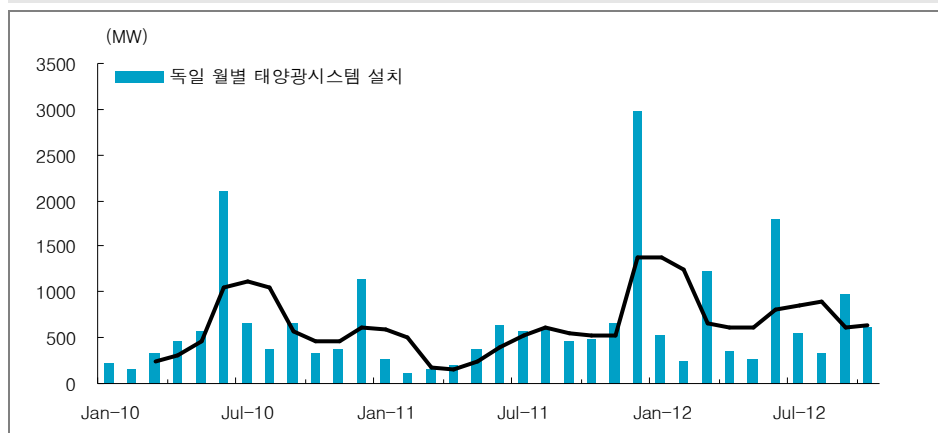
12월 월간 밴드	1,870-2,030pt
2013년 연간 밴드	1,780-2,400pt
12MF PER	9.4배
12MF PBR	1.06배
Yield Gap	7.7%P

- ▶ 미국 쉐파워, SolarCity는 일반소매고객 태양광 시스템 설치 수요를 기반으로 성장
- ▶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에 비해 시스템 설치 비중이 높은 미국 태양광업체 주가는 안정적임
- ▶ 미국, 중국, 일본 등의 태양광 시스템 설치수요는 안정적으로 늘어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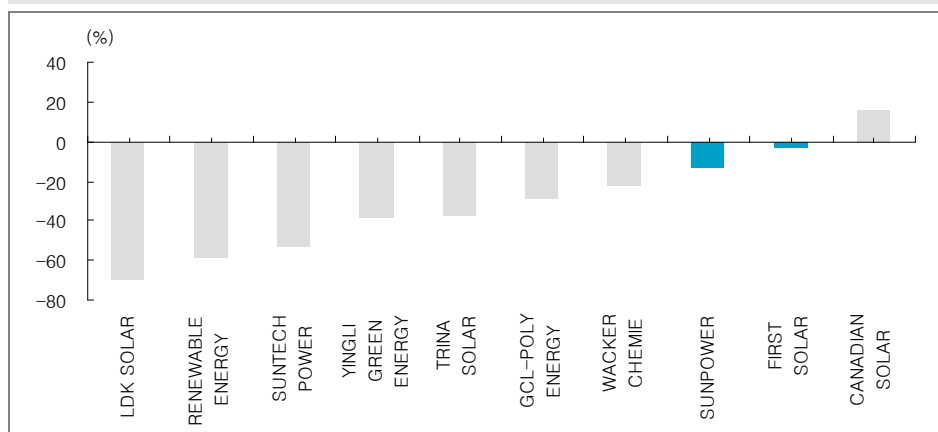
■ 미국 태양광업체 주가는 왜 오르는 걸까?

글로벌 태양광시스템 수요의 74%(2011년 기준)를 차지했던 유럽은 재정부담으로 인해 태양광시스템 설치를 통제하고 있다. 이태리와 달리 재정이 건전한 독일마저도 태양광시스템 설치를 2011년 7.5GW에서 2012년 7~8GW, 2013년 2~3GW로 축소할 예정이다. 유럽 태양광산업 보조금 축소뿐 아니라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인해 몇몇 글로벌 태양광업체 주가는 2012년 연초대비 50% 넘게 하락했다. 오성엘에스티, 넥솔론 등 한국 태양광업체도 각각 77.4%, 63.8% 하락했다.

[그림 1] 독일 월별 태양광시스템 설치 - 2012년 독일 수요성장 정체



[그림 2] 2012년 글로벌 태양광업체 주가수익률 비교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퍼스트솔라,
쉐파워가 여타업체 대비
양호한 상황

일부 미국 태양광업체는 주가흐름이 건조함

글로벌 태양광업체 주가 약세에도 미국의 퍼스트솔라, 썬파워 등 태양광업체 주가는 양호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12월 13일 주당 8달러에 상장한 태양광설치업체 SolarCity의 주가는 14일 11.72달러로 46%나 상승했다.

미국 태양광 업체는 BtoB보다 BtoC를 강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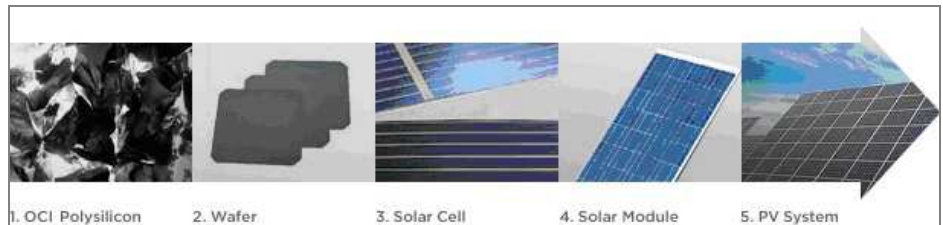
미국 태양광업체는 태양광시스템 설치를 중심으로 수익구조를 바꾸고 있다. 태양광시스템설치업체 SolarCity는 공급과잉으로 판가하락 우려가 높은 폴리실리콘/웨이퍼 생산보다 태양광시스템 설치에 주력하고 있다. SolarCity는 전기요금이 높고 태양광이 풍부한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전기요금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일반소매고객에게 태양광 패널을 낮은 가격으로 대여, 설치해주는 렌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썬파워도 일반소매고객의 태양광시스템 설치를 늘리고 있다. 썬파워는 높은 광변환효율(24%, 결정형 태양전지) 기술력을 바탕으로 태양광시스템 설치공간이 비좁은 미국내 일반소매고객에 어필하고 있다. 썬파워의 미국내 일반소매고객은 6만명, 글로벌 일반소매고객은 10만명에 달하고 있다. 썬파워는 일반소매고객 기반 확대에 힘입어 12년 3분기 EMEA(유럽, 중동, 아프리카)지역 매출이 70% YoY 감소했음에도 총 매출은 14%밖에 감소하지 않았다.

퍼스트솔라는 유틸리티프로젝트(EPC, 설계/구매/시공)에 집중하고 있다. 퍼스트솔라는 낮은 광변환효율(12%, 박막형 태양전지)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생산단가에 힘입어 태양광발전소 등 유틸리티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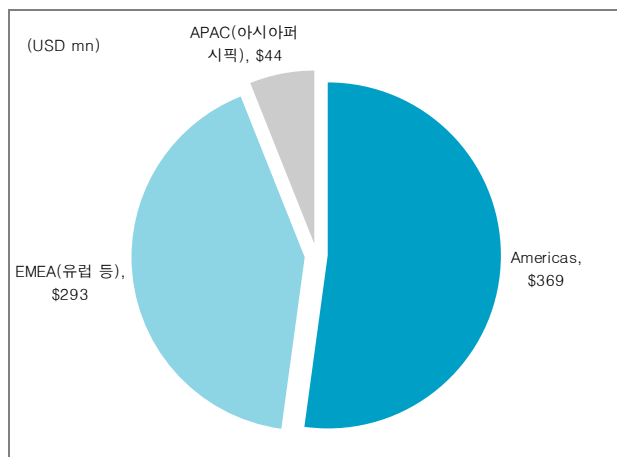
[그림 3] 태양광산업 계통도 (결정형 태양전지)

- 1) 폴리실리콘
- 2) 웨이퍼
- 3) 셀
- 4) 모듈
- 5)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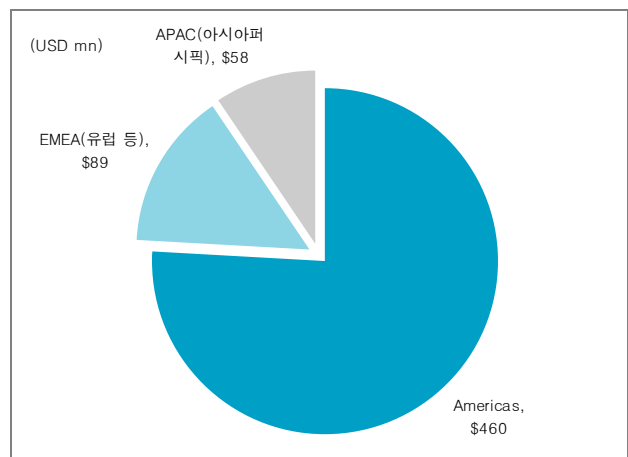
자료: OCI, 한국투자증권

[그림 4] 썬파워 2011년 3분기 매출구조



자료: Sunpower, 한국투자증권

[그림 5] 썬파워 2012년 3분기 매출구조



자료: Sunpower, 한국투자증권

■ 태양광산업: 폴리실리콘보다 모듈/시스템

GCL 등 중국 폴리실리콘업체 주가는 중국정부의 태양광 보조금 확대정책 발표에 힘입어 상승하고 있다. 블룸버그 기준으로 2012년 폴리실리콘 판가가 36% 하락할 때 웨이퍼, 모듈 판가는 22%, 14% 하락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2년 과도하게 하락한 폴리실리콘 판가 반등기대가 높다. 그러나 폴리실리콘 생산과잉에 따른 낮은 가동률을 고려하면 폴리실리콘 판가 반등 강도는 아직 불확실하다.

미국, 일본, 중국 등
태양광시스템 설치수요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

따라서 폴리실리콘 판가가 태양광시스템의 원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게다가 미국, 중국, 일본 등의 태양광시스템 설치수요는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일본에서는 원전비중 축소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으로 태양광시스템 설치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림 6] 퍼스트솔라와 GCL 주가 일봉 추이

퍼스트솔라 주가가
GCL 주가보다 안정적이다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7] 도쿄전력(Tepco) 주가 주봉 추이

아베 신조 자민당의 압승에
힘입어 도쿄전력은
17일 32.89% 상승

일본이 원자력발전소를
일부 재가동할지라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ppendix

— 전주 주요일정

날짜	국가	내용
12/11	미국	애플, 14일 아이폰5의 중국정식출시를 앞두고 예비판매 호조, 매 분기 500만대 이상의 아이폰 판매될 전망
12/11	미국	썬파워 등 북미/유럽 태양광주 일제히 상승, 미국, 중국 수요 증가에 힘입어 상승 지속되고 있음
12/12	한국	STX그룹, STX 에너지 외자유치, STX OSV 매각, STX 팬오션 매각, STX 유럽 상선부문 매각 등 검토 중
12/12	한국	LG디스플레이, 차익실현 매물, 1분기 생산전환에 따른 생산감소, 애플 주문감소 우려 등을 반영하며 외국인, 기관 매도로 급락
12/12	한국	삼성전자, 2013년 휴대폰 5억대, TV 5,500만대 판매목표, 반도체부문은 공격적인 투자보다 생산라인 효율성 극대화 추구
12/12	북한	북한, 12일 오전 9시 50분쯤 장거리로켓 은하3호 발사, 1시간 30분만에 로켓에 탑재된 '광명성3호'의 위성궤도 진입 성공 발표
12/12	한국	북한 로켓 발사에도 외국인 KOSPI 현물 2,057억원, 선물 5,105계약 순매수, 시가총액 상위주 대부분 상승
12/12	EU	EU재무장관회의, 독일, 프랑스는 유로존 은행 단일 감독기구 세부방안 논의중, 크리스마스 이전 합의가능성 부각됨
12/12	미국	12월 FOMC, 13년 1월부터 매달 450억달러 국채를 추가 매입할 계획, QE3 확대, 2015년 중순까지 초저금리 유지
12/12	미국	12월 FOMC, 실업률,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각각 6.5%, 2.5% 제시, 통화정책의 일관성 높아짐
12/12	미국	WTI, 86.77달러/1.1% 상승, 금 2월 선물가격 1,717.90달러, 0.5% 상승, QE3 확대에도 재정절벽 우려로 상승폭 제한
12/12	미국	애플, 일본 샤르, 대만 혼하이정밀 등 부품업체와 함께 여러 종류의 TV 디자인을 검토 중이라고 WSJ 보도
12/12	북한	UN안전보장이사회, 북한 장거리 로켓을 기습 발사를 "명백한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규탄함, 1주일내 제제안 발표 예정
12/13	한국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2.75%로 동결, 10월 이후 2개월 연속 동결, 미국, 중국 경기지표 회복 반영
12/13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편의점 프랜차이즈 모범 거래기준 시행, 신규 가맹점이 기존 편의점의 250m안에 개점 불가
12/13	한국	고려아연, 4분기 영업이익 악화 전망 대두, 약달러에도 불구하고 귀금속 가격 하락으로 실적 악화
12/13	한국	선물옵션만기일, 외국인 투자자, KOSPI 현물 5,369억원, 선물 1,883계약 순매수, 프로그램 매수세도 9,128억원 유입됨
12/13	일본	일본 니케이지수 1.68% 상승, 미국 QE3 확대 이후 안전자산 회피 심리로 미국 국채금리, 엔화 약세 나타남
12/13	영국	S&P, 영국의 AAA 신용등급에 대한 향후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 재정부채 증가 우려
12/13	미국	존 베이너 하원의장 기자회견, "대통령이 지출 삭감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실한데 문제는 지출이다"고 강조
12/13	미국	신규 실업수당 신청건수 34.3만건, 예상치 36.9만건 하회, 허리케인 샌디 충격에서 벗어나 대폭 감소
12/13	미국	베스트 바이 15.93% 급등, 오프라인쇼핑 성장둔화로 곤란을 겪고있는 베스트바이 M&A설 부각됨
12/13	EU	EU 재무장관회의, 단일은행감독체제 합의, ECB에 자산 규모 300억 유로 이상의 대형시중은행에 대한 감독권한 부여
12/13	그리스	유로 재무장관회의(유로그룹),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344억 유로의 지급 승인, 다음주 지원 예정
12/14	일본	4분기 단칸(단기경제관측조사) 대형제조업체 업황판단지수 -12, 예상치 -10, 3분기 -3, 하회,
12/14	일본	12월 16일 일본 총선을 앞두고 엔화 약세 지속, 엔달러환율은 약 84엔 수준까지 상승
12/14	중국	12월 HSBC 중국 제조업 PMI 잠정치 50.9, 1년 2개월 만에 최고치, 11월 이후 2달 연속 50 상회, 제조업경기 회복
12/14	인도	인도정부, 일본 투자 유치, 토지수용법 개정을 통해 도로 등 인프라 투자 가속화할 예정, 블룸버그 보도
12/14	한국	STX그룹, STX팬오션 매각 결정 이후,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등이 인수후보로 부각되고 있으나 불확실성 여전함
12/14	한국	프로그램 매수세가 0.9조원 유입되었던 선물옵션만기일 다음날임에도 프로그램 매수세 3,653억원 유입됨
12/14	중국	상해종합지수 4.32% 상승한 2150.62로 마감, 내수를 중심으로 경제 회복, 금융주, 원자재주 강세
12/14	EU	12월 유로존 PMI 예비치 47.3, 11월 46.5 상회, 다만 11개월 연속 기준치 50 하회
12/14	미국	11월 CPI -0.3% MoM, 예상치 -0.2% 하회, 휘발유 가격이 7.4% 급락, 에너지 가격이 4.1% 하락, 물가 안정 기대 높음
12/14	미국	11월 산업생산 1.1% MoM, 예상치 0.3% 상회, 2010년 12월 이후 최대 증가, 자동차 생산이 3.4% 증가, 5개월만에 증가
12/14	미국	애플, 509.79달러로 -3.76%, 아이폰 생산률 하락, 중국 아이폰5 판매 예상치 하회 등을 주가하락 지속
12/14	미국	코네티컷주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발생, 범인 등 28명 사망, 총기소지 허용 논란 불거져
12/16	일본	자민당, 3년 3개월만에 정권 탈환, 480 중의원 의석 중에서 294석 확보, 공명당 31석, 일본유신회 54석 등 우경화 두드러짐
12/16	중국	15~16일 중앙경제공작회의, 개혁개방 지속, 안정적인 경제성장,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의 결합, 민생 개선 강조
12/17	대만	D램익스체인지, 12월 상반기 DDR3 2기가, 4기가 고정가격이 0.81달러, 15.5달러로 11월 하반기 대비 1.25%, 1.64% 상승
12/17	한국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11.3% WoW, 비수기임에도 컨테이너선 운임은 바닥권에서 상승기대, 한진해운 강세
12/17	한국	웅진그룹, 주력 계열사인 웅진케미칼 매각하기로 확정, 그룹계열사 차입금 연장 등 지원 기대 높아짐
12/17	한국	한국항공우주(KAI) 매각 분입할 유찰, 대한항공은 분입할 마감 직전 KAI 고평가를 이유로 불참 결정함
12/17	한국	코라오홀딩스, 유상증자, 분식회계 등 루머로 약세, 회사측은 부인했으나 주가 약세 지속
12/17	한국	LG생활건강 더페이스샵 싱가포르 판매법인 100% 172억원에 인수, 아세안, 인도 시장 공략 본격화
12/17	한국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당 문재인 후보, 취득세율 1%포인트 감면 혜택을 1년 연장할 예정
12/17	일본	12월 26일 총리 부임할 예정인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디플레이션 탈피와 엔고 시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

경제공작회의 폐막, 상해지수 강세 유지

- ▶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 주말 개최,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
- ▶ 중국 인민은행, 11월 외국환평형기금 전월비 736억 위안 감소, 월별 감소액 연중 최대
- ▶ 중국, 11월 10대 도시 토지출양금 663억 위안으로 16개월래 최고치 -이거부동산

상해종합지수 상승세 지속
석탄, 음식료 등 강세 주도
신에너지, 헬스케어업종
하락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가 지난 주말 급등에 이어 강세를 지속했다. 거래금액은 1,106억 위안으로 직전 거래일에 비해 줄었지만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15~16일에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내년 경제정책의 연속성과 적극적인 도시화를 통한 내수확대, 안정적인 성장 확보 등이 강조되면서 양호한 투자심리가 유지됐다. 최근 약세를 보였던 석탄, 음식료주가 큰 폭 상승했고 기관들이 도시화 수혜주인 시멘트, 기계 등 경기민감주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주도 강세였다. 중국 외환관리국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부펀드와 중앙은행 등 기관들의 중국 본토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의 투자한도 상한선을 10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기로 결정한 것도 우호적인 요인이었다. 기존 QFII 단일기관의 누적 한도액은 10억 달러로 제한돼 있었다. 석탄(+3.2%), 음식료(+2.2%), 항공(+2.1%), 증권/보험(+1.6%), 비철금속(+1.6%), 철강(+1.5%), 정유/화학(+1.5%), 섬유/의류(+1.2%), 기계(+1.0%), 자동차(+0.9%) 등 대다수 업종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신에너지, 헬스케어, 건설, 제지, 유틸리티, 부동산 등의 업종은 차익실현으로 내렸다.

■ 홍콩 시장

홍콩H지수는 소폭 내림세로 마감했다. 주말에 열린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도시화, 개혁 등이 강조됐고 안정적 통화정책과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결정은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북경 등 일부 도시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짐과 연말 재정확대 기대로 장 초반 지수가 강세를 보였으나 미국 재정절벽 협의 난항과 일본 선거 재료가 부각되면서 후반 약세로 전환했다. 특히 일본 극우 세력인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했다는 소식으로 향후 중-일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됐다. 일본 관련주가 모두 큰 폭으로 내렸고 특히 동풍자동차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그 외 자동차, 철도건설, 기계, 통신업종이 약세를 주도했다. 반면 보험과 은행, 석탄 관련주는 강세를 유지했다.

홍콩H지수 소폭 반락
일본 관련주 큰 폭 하락
자동차, 철도건설, 기계 등
약세 주도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 분	12/17(월)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160.34	0.45	3.67	9.10	-1.78
홍콩 H	11,294.11	-0.12	2.73	6.32	13.66
인도 SENSEX	19,264.51	-0.27	-0.75	-0.39	24.65
러시아 RTS	1,495.88	-0.33	1.02	4.13	8.25
브라질 보베스파	59,604.92	0.49	1.91	3.71	5.02
베트남 VN	393.63	0.36	1.79	4.18	11.97
MSCI 이머징마켓	1,042.82	0.02	1.34	3.56	13.80

주: 17일 오후 5시 50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재정절벽 우려가 지속되며 코스피 1,980P으로 일보 후퇴

- 미국 증시는 경제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재정절벽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애플이 급락하며 주가 하락을 주도, 사흘연속 하락 마감. 약보합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13거래일 연속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개인의 동반 매도세가 지수 상승을 저지, 1,980P선에서 마감.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나홀 만에 하락 반전하며 1% 이상 급락, 490P선을 이탈하며 마감.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승리하자 엔화 약세 심화 가능성이 부각되며 이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들에 대한 우려와 함께 펀드 판매물량이 출회되며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겨울철 한파 속 전력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전력 수요 통제를 위해 전기요금을 조기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며 한국전력이 강세를 보였으며, 일본 전자지급결제 전문 기업 SBI액시즈가 SK플래닛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한국시장에 본격 진출을 선언하며 코스닥 신규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 대선 이후 식품업체들의 제품가격 인상이 잇따를 것이라는 보도에 오리온을 비롯한 식품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으며, 10년 동안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발병률이 8배 가량 급증했다는 소식에 수혜 종목들이 강세를 보임. 또한, 중국의 태양광 지원 정책에 따른 업황 회복 기대감에 태양광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돋보임. 반면, 3년 연속 주식 배당 실시 소식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 회계 문제설이 제기되며 코라오홀딩스가 급락했으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통주 90%를 감자한다는 소식에 한일건설이 하한가를 기록

종목/테마	내 용
한국전력(015760) ▶28,650(+3.24%)	전기 요금 인상에 따른 흑자전환 전망에 강세 - 겨울철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중단 및 전력난으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며 강세 - 전력수요 통제를 위해 정부가 전기요금을 조기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내년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수익성 회복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
SBI액시즈(950110) ▶3,725(상한가)	일본 PG전문 기업으로서 코스닥 신규 상장 첫날 상한가 - 일본 전자지급결제(Payment Gateway) 전문 기업으로서, 코스닥 신규 상장 첫날 상한가. SK플래닛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한국시장에 본격 진출할 예정 - 이날 SK플래닛과 상호 시장진출 지원 및 신규 전자상거래 사업자 대상 사업 인프라 참출 등을 위해 포괄적 업무제휴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식품 관련주	식품가격 인상 기대감에 강세 - CJ제일제당이 오는 20일부터 두부, 콩나물 등 신성식품과 조미료 등 가공식품 가격을 10% 안팎 인상한다고 밝힘에 따라 식품가격 인상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 - 오리온(001800, +4.28%), 롯데제과(004990, +4.32%), 롯데삼강(002270, +4.19%), 대상(001680, +4.18%), CJ제일제당(097950, +3.41%) 등 강세
치매 관련주	치매 환자 급증 소식에 강세 - 65세 이상 노인의 주요 질환 가운데 치매 환자가 10년새 8배 가량 급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수혜 기대감에 강세 - 모나리자(012690, +9.83%), 메디프론(065650, +6.23%), 씨티씨바이오(060590, +3.28%), 대웅제약(069620, +2.96%), 오스코텍(039200, +2.93%)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대양전기공업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대양전기공업 (108380)	12,950 (+1.6)	12,750 (12/12)	- 선박용 조명기구 전문회사로 해양 플랜트 조명으로 사업영역 확대. 추가로 군함용 통신시스템 및 배전반을 생산하고 있으며, 자동차용 센서를 신사업으로 추진 - 주력인 선박 조명과 플랜트, 방산 등 전 부문에서 안정적인 실적 흐름 지속.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자동차용 압력 센서에 대한 국내 완성차업체의 국산화 의지와 맞물려 2013년부터 가시적인 성과 기대
MDS테크 (086960)	12,950 (-0.8)	13,050 (11/30)	- 임베디드 소프트웨어(OS, 애플리케이션, 개발툴) 전문업체로 차량 및 국방/항공 분야 IT융합 수요 확대 등으로 중장기 성장성 부각 가능성. - 4분기에는 계절성(연말 고객사 SW관련 예산 소진)과 더불어 현대오토론 등 자동차 전자회사향 매출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 모멘텀 재개 예상 - 성장성, 기술 경쟁력, 진입장벽 등을 감안할 때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동일금속 (109860)	13,150 (-0.4)	13,200 (11/20)	- 크롤러크레인 트럭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국내외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제품다변화를 통해 2012년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전망 - 글로벌 광산 개발투자 확대에 따른 초대형 굴삭기 투락수 수요 증가세 지속 전망 - 독창적 아이템으로 가격 경쟁력, 일괄공정체제로 원가경쟁력
엠케이전자 (033160)	4,665 (+11.5)	4,185 (11/02)	- 최근 본딩와이어 시장은 비용부담이 큰 골드(Gold)본딩와이어의 대체품으로 구리를 사용한 본딩와이어(PCC; Pd Coated Copper Wire)가 개발돼 시장 구조의 변화가 진행 중임, 당사는 글로벌 구리본딩와이어 시장에서 일본 NMC사에 이어 M/S 2위 기록 중 - 현재 구리본딩와이어는 대만 패키지 업체들로 주로 공급되고 있으나, 향후 국내 칩메이커들로도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PCC의 매출 확대에 의해 2%대에 불과하던 영업이익률은 점진적인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로엔 (016170)	12,200 (-15.6)	14,450 (11/02)	- 2013년 음원가격 상승으로 멜론 서비스의 가입자당 매출액(ARPU) 증가와 함께 SKT와의 공동 마케팅으로 인한 가입자 증가에 따른 성장성 부각 가능성 - 저작권 보호, 콘텐츠 수요 확대 등 우호적인 산업, 보유 아티스트 라인업 확대, 수직 계열화된 사업부문의 경쟁력, 경쟁업체 대비 저평가 매력 등을 주목할 필요
골프존 (121440)	59,400 (+6.1)	56,000 (10/18)	- 스크린골프 라운딩수 증가와 유료라운딩을 상승으로 네트워크 매출 호조, 신제품 골프시뮬레이터 비전의 양호한 매출 등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재부각 가능성 상존 - 또한 골프존 아카데미, 골프존 마켓 등 기존 신규 사업 외에 무료 필드 부킹과 디지털 캐디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추가 수익원 발굴 노력을 주목할 필요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골프존 발행주식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대표 주관업무를 수행한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LS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2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LS (006260)	92,400 (+5.6)	87,500 (11/20)	12,291	574	234	8,410	11.0
			- 2013년에는 LS전선과 LS산전의 실적 개선 예상. LS전선은 고수익 제품인 해저전력선의 해외 프로젝트가 실적에 반영되고 중동 초고압 전력선의 호황기 진입에 따른 실적 개선 예상 - 또한 LS산전은 이라크를 필두로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의 확대, 신규 사업 적자 축소 등으로 영업이익 개선 예상. LS니코동제련도 도시광산 자회사의 성장으로 이익 증가 전망				
삼영이앤씨 (065570)	7,270 (+0.4)	7,240 (11/07)	46	11	9	1,023	7.1
			- 방산부문의 안정적인 수요, 선박안전 관련 규제 강화(Solas협약, 어선법), 일본 및 중국으로의 수출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예상 - 연평균 15% 이상의 성장세, 20%를 상회하는 영업이익률, 안정적인 재무구조, 우호적인 시장 환경 등을 감안할 때 리레이팅 가능성 상존				
삼성전자 (005930)	1,503,000 (+15.7)	1,299,000 (10/30)	203,704	28,800	22,831	151,499	9.9
			- 갤럭시S3의 판매 호조에 따른 스마트폰 판매 증가 및 이익률 상승으로 안정적인 실적 흐름 지속 - 최근 갤럭시노트10.1의 호평에 힘입어 태블릿의 경쟁력 부각 - 휴대폰 부문의 캐시카우 역할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실적 개선 본격화로 2013년에도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전망				
NHN (035420)	227,000 (-12.7)	260,000 (10/23)	2,377	633	503	11,428	19.9
			-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높은 검색 점유율 유지 -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인 '라인(LINE)'의 일본 등 해외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로 중장기 성장원 확보 - 워닝일레븐 온라인 등 신규 대작 게임들의 출시로 웹보드게임 부진을 만회할 전망				
KCC (002380)	295,500 (+5.9)	279,000 (9/27)	3,434	225	696	70,906	4.2
			- 금년 하반기부터 주택 입주량이 3년 만에 증가세로 반전함에 따라 이익의 Down-side Risk 완화. 전략적 지분 매입을 통한 Captive market(올해 1월에는 에버랜드 주식 매입)을 확보하고 있어 경쟁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 안정성 확보 - 전방산업의 업황 바닥 통과 가능성, 수직 계열화를 통한 시장 지배력 강화, 이익 안정성 등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LG화학 (051910)	324,500 (-0.5)	326,000 (9/17)	24,006	2,177	1,627	22,136	14.7
			-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다각화된 사업구조와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으로 안정적인 이익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LCD용 유리기판, 2차전지 등 장기 성장성을 주목할 필요 - 석유화학 제품의 스프레드 개선, 정보전자소재 및 전지 제품의 판매량 증가 등으로 3분기에는 실적 개선 기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삼성전자, LG화학, NHN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현재 NHN 발행주식의 자기주식취득 위탁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여행업: 인바운드 효과 그 이상

■ 리레이팅을 가능케 하는 다섯 가지 변화

인바운드만으로 최근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주가 상승을 온전히 설명해낼 수 있을까? 결론을 말하자면 인바운드는 리레이팅을 가능케 한 여러 이유 중 하나에 불과하다. 여행산업 저변에서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1) 내국인 해외여행 수요 회복 국면 진입, 2) 공급자와의 협상력 증가, 3) 상위업체로의 집중화 가속, 4) 소비패턴 변화, 5) 인바운드 시장 모멘텀 확보 측면에서 여행 산업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 아웃바운드 재조명

내년 출국자수는 올해 대비 7.4% 증가한 1,461만명, 2014년 출국자수는 4.4% 증가한 1,525만명으로 추정된다. 2011년 자연재해로 인한 이연수요가 2012년에 집중됐고, 2013년 이후에는 견조한 경제성장과 우호적 환율 여건으로 회복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형 성장뿐 아니라 수익성 제고에 긍정적인 환경도 마련됐다. 항공권 공급 확대, 호텔 확보 및 호텔앤에어 설립으로 협상력을 확보하고, 제로커미션 정책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상위 도매여행사로의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2005년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합계 M/S는 12.3%에 불과했으나 2011년 현재 25.8%에 달한다.

■ 대표 여행주인 하나투어, 모두투어 추천

대표 여행업체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를 추천한다. 2013년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EPS 증가율은 각각 올해대비 24%, 42%로 예상된다. 하나투어는 외형확대 대신 원가통제에 집중할 전망으로 영업이익률은 올해 14%에서 내년 16%로 상승하여 수익성이 제고될 것이다. 모두투어는 전문판매점 확보로 시장보다 빠른 매출액 증가(+26.5%, YoY)가 예상되며 규모의 이익으로 영업이익률 18%를 달성할 전망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2월 14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엔터테인먼트.레저 : 관광 한국의 시대

■ 원화 강세와 기저효과 감안해도 외국인 관광객 연 10% 이상 증가 예상

여행수지(유학수지 제외)는 2001년 이후 만성 적자를 겪었으나, 금년에는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외국인 국내 여행 지출액이 빠르게 늘어난 반면 내국인 해외 여행 지출액은 예년에 비해 정체되었기 때문이다. 2012년 내국인 출국자 수가 7% 늘어나는 반면 외국인 입국객수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1,12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에는 '원화 강세' 요인과 직전 2년간 급격한 성장세의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한류에 따른 긍정적 이미지 확산, 중국인 입국에 대한 비자 완화, 의료관광 활성화를 비롯한 정부의 노력 등에 힘입어 인바운드 관광객은 1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1인당 지출 비용이 큰 중국 및 중동 방한객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관광수입 증대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관광객들은 쇼핑과 숙박에 가장 많은 돈을 지출

외국인 여행객들의 경비 중 가장 큰 항목은 쇼핑이다. 면세점은 최근 3년간 연평균 23% 성장해 2012년 시장 규모는 56억달러로 예상된다. 중국인은 한국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이 쇼핑으로 면세점 매출에서 중국인 비중은 2012년 3분기 38%(호텔신라 기준) 수준이다. 여행 경비 중 두 번째 큰 항목은 숙박비다. 성수기에는 서울, 제주 등에서 관광호텔이 부족할 정도다. 중국 본토와 일본에 카지노가 없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장객은 지난 3년간 36% 증가해 2012년에는 시장규모가 1조 2,54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 추천종목은 호텔신라, GKL, 대한항공, 하나투어, 모두투어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여행수지 개선 수혜 종목으로 면세점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호텔신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로 양호한 성장이 예상되는 GKL, 탑승률 상승에 따른 항공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대한항공, 호텔 사업 개시와 인바운드 여행 증가로 성장이 예상되는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를 추천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2월 14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반도체: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 확인

■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경쟁력 부각, 반도체 기회 요인 주목

12월 10일부터 14까지 뉴욕, 샌프란시스코의 주요 기관 투자자들과 만나 2013년 반도체 산업 전망 및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및 태블릿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고, 애플 아이폰5의 부진에 따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경쟁력이 더욱 부각되었다. 2013년 메모리 수급 개선에 대해서 공감하고 향후 애플의 AP 공급선 다변화에 따른 삼성전자 시스템 LSI의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감이 있었으나 기회요인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 삼성전자 스마트폰 및 태블릿 전략에 관심

2012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의 놀라운 성과가 2013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한국투자증권이 전망하는 스마트폰 284백만대, 태블릿 31백만대 대비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스마트폰 350백만대, 태블릿 40백만대와의 차이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우리는 삼성전자가 판매수량이나 M/S 확대 못지않게 적정 수익성 유지에도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본다. 또한, 최근 아이폰5 판매 부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공급 증가 둔화에 따른 2013년 메모리 수급 개선에 주목

2013년에는 PC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중심으로 모바일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capex 축소 및 미세가공전환 지연에 따른 공급 증가 제약으로 메모리 수급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과 SK하이닉스의 수익성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의 위험을 기회로

삼성전자의 시스템 LSI 사업은 2014년 이후, 애플의 파운드리업체 다변화에 따라 애플향 AP 비중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수 있지만, AP 사업 확대와 파운드리 사업 강화로 글로벌 반도체 선두업체로 도약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단지 삼성전자가 일부 팹리스업체의 경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사업에서 제약이 있는 점과 인텔의 파운드리 산업 진출에 따른 경쟁 격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 삼성전자(TP 185만원), SK하이닉스(TP 34,000원)를 추천

삼성전자는 2013년에는 반도체의 수익 개선이 휴대폰을 넘어서면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의 아이폰5 판매 부진에 따라 삼성전자의 매력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13년에는 OP 34.7조원으로 현 주가 1,515,000원 대비 PER 8.2배, PBR 1.7배로 valuation 매력이 부각되어 주가가 지속 상승할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2013년 메모리 수급 개선의 최대 수혜주이지만, 단기적으로 4분기 실적 개선 회복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은 점은 우려 사항이다. 2013년 분기 실적의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주가가 상승할 전망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2월 1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자동차: 엔화 약세에 대한 과도한 우려

■ 엔화 약세의 영향은 제한적

16일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승리하며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일본 총리로 귀환하게 됐다. 이에 17일 엔화의 추가적인 약세에 대한 우려가 한국 완성차업체들의 주가 하락을 견인했다. 그러나 지속되는 원/엔 환율 하락세가 다음 3가지 이유로 현대차, 기아차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 이로써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 320,000원(12개월 forward PER 10배 적용, 역사적 평균치에 10% 할증)과 105,000원(12개월 forward PER 10배, 업종 평균 PER)을 유지한다.

■ 1. 현대차, 기아차의 수출비중 급락

지속적인 해외 생산능력 확장으로 현대와 기아의 전체 판매대수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05년부터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11월 수출비중은 07년 11월 52.1%, 전년동월 36.7%에서 33%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현대차는 45.4%, 31.4%에서 28%로 하락했고, 기아는 63.4%, 44.9%에서 40.3%로 하락했다. 현재 진행중인 중국과 터키공장의 생산능력 확장을 고려하면 이러한 하락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 2. 일본 완성차업체들의 수출비중 하락세 지속

일본업체들은 08년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자 공장을 다시 해외로 이전하기 시작했다. 또한 11년 대지진 피해로 최근의 엔화 약세가 생산기지를 옮기는 이러한 추세를 멈추게 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업체들의 전체 판매대수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08년 28.7%에서 10년 21.1%, 12년 상반기 18.2%로 하락했다.

■ 3. 현대차, 기아차 중국판매, 미국판매 추월

11월 현대와 기아는 사상 최대 중국판매(142,987대, +29% YoY)를 기록하며 11월까지 중국판매가 미국판매를 추월했다. 11월까지 중국판매는 120만대(+12.7% YoY), 미국판매는 116만대(+12.1% YoY)이다. 양사는 11월 미국에서 94,542대(+9.1% YoY)를 판매했다. 09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으로 부상했다. 극우파인 아베 신조의 승리로 중국에서의 반일 감정은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되어 현대와 기아가 최대 수혜를 볼 전망이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완성차는 현지에서 생산된다. 한편 11월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일본차의 69.9%가 북미에서 생산됐으며 현대와 기아는 53.6%를 현지에서 생산했다.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2월 17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KB금융(105560)

매수(유지)

목표가: 57,000원(유지)

종가(12/14): 37,700원

ING 생명보험 인수 실패를 가정하고 있는 주가

■ 현 주가는 이미 ING 생명보험 인수 실패를 가정

언론보도에 따르면 KB금융은 18일 이사회에서 ING 생명보험 한국법인 인수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KB금융은 지난 5월 인수 적격 예비후보로 선정되었으나 최종 결정은 번번이 연기되었었다. 특히 지난 9월에 인수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KB금융의 주가도 상승했지만 인수 결정이 연기되면서 KB금융의 지난 3개월 KOSPI 대비 상대수익률은 -8.2%로 외환은행 다음으로 가장 저조하다. 우리는 현재 KB금융의 주가가 이미 ING 생명보험 인수 실패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매수 관점에서의 접근을 추천한다.

■ 인수 가능성 상승: 인수가격은 2.2조로 더 낮쳤고 은행 노조 입장도 긍정적으로 선화

KB금융의 ING 생명보험 인수 협상가격은 2조 4천억원대로 알려졌다. 최근 2조 2천억원선으로 더 낮춰진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는 2012년 3월말 순자산가치 2조원 대비 PBR 1.08배이며 같은 기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PBR은 1.03배 선이다. 그러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FY2011 ROE는 각각 6.2%와 8.7%이었고 ING 생명보험은 12.5% 인 점을 감안하면 ING 생명보험의 인수가격이 비싸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 동안 ING 생명보험 인수에 부정적이었던 국민은행 노조가 최근 인수 찬성 입장으로 선화한 점도 긍정적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은행 노조는 지난 14일 KB금융 사외이사 측에 이메일을 보내 ING 생명 인수 지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인수 효과: 인수 결정시 2013년 ROE 약 33bp 상승 기대

ING 생명보험 인수시 KB금융의 2013년 ROE는 기존 추정치 대비 약 33bp, BPS는 0.7%, EPS는 8.7% 상승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ING 생명보험의 2012년 3월 기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며 인수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적이다. 회계기준연도를 2013년으로 바꾸고 향후 시너지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수익성 제고 효과는 더 높아질 수 있다.

■ 이미 부담 없는 주가, 기존 투자포인트인 건전성과 밸류에이션 매력은 덤

KB금융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7,000원(지속가능한 ROE 8.0%, 자본비용 10.7%, 성장률 1.0%)를 유지한다. 우리는 KB금융의 주가가 이미 ING 생명보험 인수 실패를 가정하고 있다고 판단, 설령 18일 이사회 결과에서 인수 결정이 부결되거나 또다시 연기되더라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 우리의 2013년 은행주 종목 선정 기준이었던 자산건전성과 밸류에이션 메리트 또한 여전히 유효한 투자포인트로 남아있으므로 현 주가에서의 추가 하락 위험도 보다는 상승 매력을 감안해야한다는 판단이다.

	총영업이익 (십억원)	총전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BPS (원)	PER (배)	PBR (배)	ROA (%)	ROE (%)
2010A	7,377	3,047	19	88	242	(83.0)	46,449	247.9	1.3	0.0	0.5
2011A	9,074	5,142	3,261	2,373	6,142	2,438.0	59,319	5.9	0.6	0.9	11.6
2012F	8,558	4,611	2,848	2,153	5,574	(9.2)	63,697	6.8	0.6	0.8	9.1
2013F	8,406	4,457	2,620	2,003	5,024	(9.9)	68,562	7.5	0.5	0.7	7.8
2014F	8,758	4,814	2,948	2,254	5,673	12.9	73,990	6.6	0.5	0.7	8.2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2월 17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SK텔레콤(017670)

매수(유지)

목표가: 200,000원(유지)

종가(12/17): 156,500원

홍콩 NDR 후기: 4분기 수익은 시장 예상치 상회

■ LTE 가입자 비중 상승으로 4분기 ARPU는 2~3% 증가 추정

SK텔레콤은 홍콩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NDR을 실시했다. 주요 관심 내용은 LTE의 성장성, 마케팅 경쟁 추이, 수익 전망, 정부 규제 등이었다. 논의된 내용을 요약한다.

12일에 LTE 가입자수는 연말 목표 700만명을 돌파했다. 2013년 가입자 목표를 1,300만명에서 1,400만명으로 상향했다. LTE의 가입자당 매출액(ARPU)은 52,000원으로 3G 스마트폰 37,000원, 전체 가입자 33,100원을 상회하고 있다. 4분기 ARPU는 전분기 대비 2~3% 증가하고 2013년에는 전년 대비 5%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4분기 이후 수익 호전

4분기 들어 경쟁이 완화돼 4분기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경쟁 상황으로 보면 4분기 영업이익은 3분기 3,007억원을 크게 상회할 것이며 5,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여지도 있다(시장 컨센서스 3,954억원). 2013년 수익은 기업사업(B2B) 매출이 늘고 ARPU가 증가하는 데다 설비투자자와 마케팅비용이 감소해 증가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2012년 2.8조원에서 2013년에는 2.3조원 정도로 감소해 가용현금흐름(FCF)이 증가할 전망이다. 향후 수년간 설비투자는 LTE 이후 새로운 기술진화가 없어 감소할 것이다.

■ 방통위 제재, LTE 보급률 상승으로 경쟁 완화 예상

아이폰5가 출시됐으나 가입자 유치경쟁이 과열 국면은 아니다. 방통위는 시장 조사를 토대로 12월말에 과징금 및 영업정지 등 제재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 2012년 4분기부터 경쟁이 완화되고 2013년 초에 영업정지가 예상돼 공격적인 경쟁은 어려울 것이다. KT가 아이폰 가입자(250만명)를 LTE로 전환하면 LTE 점유율이 상승해 가입자 유치경쟁은 완화될 것이다.

■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200,000원 유지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200,000원을 유지한다. 목표 PER 8.8배는 과거 5년 평균 PER(9.4배)을 6.5% 할인한 것이다. 매수의견을 유지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4분기부터 LTE 효과가 ARPU, 수익에 반영될 것이다. 2) Valuation은 낮다. 12개월 forward PER이 6.9배, PBR이 0.8배로 낮아 저평가됐다. 3) 배당메리트가 높다. 12년 기말배당이 8,400원으로 예상돼 배당수익률이 5.4%로 높다. 4) SK플래닛의 성장성이 높고 SK브로드밴드, SK하이닉스의 흑자 전환으로 자회사의 기업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리스크 요인은 요금인하 압력이다.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가입비 폐지, 요금구조 변경 등이 거론되고 있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0A	15,599	2,286	2,318	1,842	25,599	48.5	4,588	6.8	3.8	1.0	16.4
2011A	15,988	2,131	2,183	1,613	22,848	(10.7)	4,614	6.2	2.8	0.8	14.0
2012F	16,380	1,626	1,583	1,157	16,605	(27.3)	4,200	9.4	3.9	0.9	9.7
2013F	17,137	1,969	2,095	1,598	22,926	38.1	4,635	6.8	3.4	0.8	12.6
2014F	17,644	2,075	2,634	1,982	28,442	24.1	4,746	5.5	3.1	0.8	14.4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2월 17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이수정 (sujeong.lee@truefriend.com) ☎ 02-3276-6252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2/10(월)	12/11(화)	12/12(수)	12/13(목)	12/14(금)	12/17(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57.42	1,964.62	1,975.44	2,002.77	1,995.04	1,983.07
	등락폭	-0.03	7.20	10.82	27.33	-7.73	-11.97
	등락종목						
	상승(상한)	364(8)	385(3)	467(8)	517(9)	381(5)	310(4)
	하락(하한)	465(7)	417(6)	330(4)	282(0)	410(5)	501(3)
	ADR	84.70	88.61	91.74	98.99	102.93	96.06
	이격도						
	10 일	100.94	101.10	101.33	102.38	101.66	100.83
	20 일	102.27	102.45	102.79	103.86	103.10	102.20
	투자심리	60	60	70	70	70	60
코스닥	거래량 (백만 주)	361	400	453	414	346	362
	거래대금 (십억 원)	3,607	4,427	4,561	5,894	4,250	4,204
	코스닥지수	489.59	481.59	485.33	490.15	491.65	485.48
	등락폭	0.37	-8.00	3.74	4.82	1.50	-6.17
	등락종목						
	상승(상한)	412(8)	306(3)	497(5)	635(9)	514(6)	330(14)
	하락(하한)	509(10)	622(16)	408(5)	280(2)	390(2)	597(5)
	ADR	78.42	79.51	83.81	91.68	98.23	90.35
	이격도						
	10 일	98.92	97.54	98.48	99.59	100.06	99.07
	20 일	98.74	97.44	98.37	99.39	99.60	98.43
	투자심리	60	60	60	60	60	60
	거래량 (백만 주)	296	346	323	286	332	310
	거래대금 (십억 원)	1,450	1,596	1,444	1,323	1,403	1,328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876.8	1,296.7	1,021.1	330.0	91.7	269.1	54.8	20.6	182.3	36.0
	매도	1,903.2	1,138.9	1,134.4	187.9	148.2	351.5	64.8	40.4	250.2	54.1
	순매수	-26.4	157.8	-113.3	142.1	-56.5	-82.4	-10.0	-19.7	-67.8	-18.1
	12 월 누계	-1,780.7	2,371.3	-464.6	-7.0	76.6	-344.9	-9.8	-74.1	156.4	-126.0
	12 년 누계	-14,048.6	15,504.0	3,454.9	1,552.5	2,733.8	-5,189.3	73.2	424.6	3,416.1	-4,910.3
코스닥	매수	1,215.6	49.9	62.7	10.7	8.0	21.9	5.2	2.8	11.7	16.6
	매도	1,166.7	79.9	78.3	14.8	9.5	26.9	4.0	3.8	16.7	19.9
	순매수	48.8	-30.0	-15.6	-4.1	-1.4	-5.1	1.1	-1.0	-5.0	-3.2
	12 월 누계	105.3	-33.9	-115.6	-38.9	6.1	-89.6	-21.7	-5.9	23.3	44.1
	12 년 누계	1,302.7	8.8	-517.0	8.4	86.1	-637.3	-293.5	-39.6	341.0	-794.6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가스업	17,547	운수장비	-26,900
금융업	9,188	전기,전자	-23,017
철강및금속	4,959	서비스업	-17,364
한국전력	20,514	현대모비스	-12,248
POSCO	7,984	삼성전기	-10,816
현대중공업	6,951	SK이노베이션	-10,814
신한지주	6,678	기아차	-10,434
SK	4,936	대한항공	-10,168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철강및금속	15,626	운수장비	-52,109
전기가스업	8,021	서비스업	-15,871
유통업	4,335	전기,전자	-14,043
POSCO	16,919	기아차	-31,579
SK하이닉스	15,609	삼성전자	-18,943
한국전력	6,218	현대차	-13,022
호남석유	4,826	현대모비스	-7,238
삼성전자우	3,286	우리금융	-7,013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창고	442	전기,전자	-6,079
비금속광물	9	화학	-3,562
종이,목재	0	서비스업	-2,021
LG디스플레이	1,413	삼성전자	-4,042
현대차	1,315	SK하이닉스	-3,976
오리온	1,057	POSCO	-1,433
두산	784	기아차	-1,091
TIGER 200	626	한국전력	-1,046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통신업	3,399	운수장비	-25,647
금융업	1,545	건설업	-10,199
보험	892	전기,전자	-8,816
SK	2,798	기아차	-13,135
LG유플러스	2,186	현대차	-5,841
대우조선해양	2,060	현대건설	-5,744
LG디스플레이	1,934	삼성전자	-5,431
SK하이닉스	1,835	NHN	-5,375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가스업	32,165	운수장비	-115,354
철강및금속	18,055	서비스업	-27,817
통신업	15,287	전기,전자	-14,241
한국전력	29,589	기아차	-68,561
POSCO	25,030	KODEX 200	-61,709
SK하이닉스	19,672	현대모비스	-21,799
신한지주	12,071	NHN	-18,717
KODEX 인버스	11,804	현대차	-18,709
삼성전자우	11,053	삼성전기	-14,952
SK텔레콤	6,614	현대위아	-14,499
현대중공업	6,088	삼성전자	-13,015
대우조선해양	6,051	대한항공	-9,853
KB금융	5,455	KODEX 레버리지	-8,975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36,484	전기,전자	-6,759
화학	34,680	전기가스업	-3,765
음식료품	23,562	통신업	-2,764
KODEX 200	57,860	LG디스플레이	-32,913
SK하이닉스	19,075	삼성전자우	-17,929
현대모비스	14,574	POSCO	-6,964
오리온	13,109	만도	-6,775
삼성전기	12,488	한국전력	-6,676
LG화학	10,576	엔씨소프트	-6,600
현대건설	9,533	기아차	-5,530
현대중공업	9,178	LG생활건강	-4,683
우리금융	9,090	SK텔레콤	-4,618
SK	8,749	신한지주	-4,104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오락,문화	1,769	IT부품	-3,734
디지털컨텐츠	1,678	출판,매체복제	-2,109
방송서비스	1,055	사업지원	-758
파라다이스	1,723	인터플렉스	-2,633
위메이드	1,019	에스엠	-1,980
CJ오쇼핑	1,009	에스에프에이	-1,675
진성티씨	973	네오위즈인터넷	-941
SK브로드밴드	953	이노칩	-770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비금속	942	IT부품	-1,868
제약	905	금속	-1,426
음식료,담배	550	소프트웨어	-624
포스코컴텍	942	인터플렉스	-1,213
서울반도체	651	이녹스	-783
CJ오쇼핑	609	에스에프에이	-690
컴투스	551	코나아이	-643
매일유업	550	농우바이오	-622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소매	370	화학	-739
출판,매체복제	341	디지털컨텐츠	-483
의료,정밀기기	118	기계,장비	-195
서부T&D	370	잉크테크	-801
에스엠	282	게임빌	-309
엘비세미콘	266	툽텍	-205
KH바텍	99	컴투스	-173
아트라스BX	96	실리콘웍스	-123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컴퓨터서비스	580	제약	-819
통신장비	481	IT부품	-759
방송서비스	270	전문기술	-734
플랜티넷	656	인터플렉스	-1,718
하이록코리아	620	CJ E&M	-767
파트론	601	성광밴드	-652
휴맥스	473	씨젠	-537
포스코엠텍	379	파라다이스	-536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오락,문화	2,515	IT부품	-8,873
방송서비스	1,875	출판,매체복제	-2,160
통신서비스	1,148	반도체	-2,041
파라다이스	2,424	인터플렉스	-6,249
CJ오쇼핑	1,583	에스에프에이	-1,998
웰크론한텍	1,491	에스엠	-1,737
위메이드	1,330	게임빌	-1,160
SK브로드밴드	1,046	네오위즈인터넷	-1,092
컴투스	969	평화정공	-897
씨티씨바이오	913	다음	-889
진성티씨	885	셀트리온	-857
파트론	799	OCI머티리얼즈	-769
휴맥스	795	이녹스	-733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방송서비스	564	제약	-4,849
통신서비스	342	디지털컨텐츠	-4,847
교육	320	IT부품	-4,504
신화인터텍	2,417	성광밴드	-3,689
멜파스	889	인터플렉스	-2,785
원스테크넷	714	게임빌	-2,657
에스에프에이	674	셀트리온	-2,394
이녹스	581	다음	-2,307
서울반도체	574	파트론	-1,452
플렉스컴	525	에스엠	-1,212
네패스	514	에이블씨엔씨	-1,065
태웅	494	SBS콘텐츠허브	-1,031
CJ오쇼핑	457	EG	-1,011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TIGER 삼성그룹	19 일	삼성전기	15 일
삼성증권	16 일	현대건설	14 일
대우조선해양	13 일	넥센타이어	14 일
대우증권	12 일	삼성SDI	14 일
세종공업	11 일	하나금융지주	14 일
우리투자증권	10 일	롯데제과	13 일
KODEX 조선	10 일	동부제철	13 일
TIGER 현대차그룹+	10 일	LG화학	13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매일유업	6 일	현진소재	11 일
덕산하이메탈	6 일	엘앤에프	11 일
동국산업	5 일	KCC건설	9 일
시그네틱스	5 일	신화인터텍	9 일
파라다이스	4 일	메가스터디	9 일
한국토지신탁	4 일	태웅	8 일
멜파스	4 일	SK브로드밴드	7 일
포스코엠텍	3 일	케이디씨	6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KODEX 레버리지	115,409	KODEX 200	152,764
POSCO	107,155	삼성전자	130,547
신한지주	74,279	LG화학	71,916
대우조선해양	71,668	삼성전기	61,913
OCI	51,428	현대건설	56,989
호남석유	50,617	LG전자	51,903
현대중공업	48,752	KODEX 레버리지	48,259
우리금융	43,799	삼성중공업	42,737

KOSDAQ			
기	관	외	국 인
에스엠	9,876	에이블씨엔씨	12,472
덕산하이메탈	7,524	셀트리온	9,392
파라다이스	6,130	에스에프에이	4,673
웰크론한텍	5,283	신화인터텍	3,332
위메이드	4,148	SK브로드밴드	3,255
인지디스플레	4,123	메가스터디	3,077
매일유업	3,236	유진테크	2,931
코오롱생명과학	3,172	코나아이	2,290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금융업		10,277	18,131 28,408
철강및금속		18,055	4,906 22,961
증권		5,405	3,758 9,163
SK하이닉스		19,672	19,075 38,747
현대중공업		6,088	9,178 15,266
LG화학		1,865	10,576 12,441
KB금융		5,455	3,507 8,962
S-Oil		1,478	5,849 7,326
한국가스공사		3,261	2,491 5,752
삼성생명		2,153	3,465 5,618
현대제철		844	4,740 5,584
KT		3,228	1,996 5,224
아모레퍼시픽		247	4,530 4,777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방송서비스		1,875	564 2,439
통신서비스		1,148	342 1,490
종이,목재		0	164 164
CJ오쇼핑		1,583	457 2,041
위메이드		1,330	445 1,774
SK브로드밴드		1,046	408 1,454
멜파스		101	889 990
네패스		294	514 808
셀바이오텍		607	60 667
메가스터디		162	333 495
아트라스BX		13	391 404
포스코엠텍		243	124 367
GS홈쇼핑		236	112 348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금호전기	20 일	케이피케미칼	9 일	우주일렉트로	9 일	태광	9 일
현대글로벌비스	16 일	KODEX 철강	8 일	미래나노텍	8 일	파라다이스	8 일
STX조선해양	13 일	SK텔레콤	7 일	KCC건설	6 일	에스엠	6 일
KOSEF 인버스	13 일	대한제강	7 일	비에이치아이	6 일	매일유업	5 일
대덕GDS	12 일	아세아시멘트	6 일	루멘스	5 일	SDN	5 일
NHN	9 일	POSCO	5 일	씨엔케이인터	5 일	다음	3 일
빙그레	8 일	우리투자증권	5 일	인터플렉스	5 일	EG	3 일
녹십자	8 일	퍼시스	5 일	셀트리온	5 일	테라리소스	3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LG전자	-136,231	POSCO	-45,397	인터플렉스	-13,819	파라다이스	-14,764
기아차	-123,448	LG디스플레이	-36,142	CJ오쇼핑	-4,982	성광벤드	-5,990
KODEX 200	-112,609	OCI	-29,397	이엘케이	-4,657	인터플렉스	-5,538
NHN	-101,672	SK텔레콤	-24,562	옵트론텍	-4,419	에스엠	-4,824
고려아연	-101,650	오리온	-24,436	로엔	-3,558	코오롱생명과학	-2,871
삼성전기	-79,595	삼성전자우	-13,058	실리콘웍스	-3,514	다음	-2,681
KODEX 인버스	-69,440	현대차	-10,001	CJ E&M	-3,201	미래나노텍	-2,470
LG디스플레이	-45,515	대우조선해양	-8,356	씨젠	-3,157	EG	-2,372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전기,전자	-14,241	-6,759	-20,999	IT부품	-8,873	-4,504	-13,377
-	-	-	-	금속	-38	-3,530	-3,568
-	-	-	-	출판,매체 복제	-2,160	-1,384	-3,544
기아차	-68,561	-5,530	-74,091	인터플렉스	-6,249	-2,785	-9,034
NHN	-18,717	-3,383	-22,099	성광벤드	-600	-3,689	-4,289
삼성전자	-13,015	-1,735	-14,750	게임빌	-1,160	-2,657	-3,818
KODEX 레버리지	-8,975	-3,901	-12,877	셀트리온	-857	-2,394	-3,251
엔씨소프트	-1,338	-6,600	-7,938	다음	-889	-2,307	-3,196
만도	-843	-6,775	-7,618	에스엠	-1,737	-1,212	-2,948
SK이노베이션	-5,706	-178	-5,884	네오위즈인터넷	-1,092	-223	-1,315
호텔신라	-1,590	-783	-2,372	에이블씨엔씨	-220	-1,065	-1,284
LG생명과학	-2,215	-47	-2,261	평화정공	-897	-129	-1,026
현대그린푸드	-399	-1,355	-1,754	OCI머티리얼즈	-769	-145	-914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6	9,129
LG디스플레이	181	5,785
엔씨소프트	34	5,608
LG전자	75	5,393
호남석유	17	4,202
현대중공업	16	3,758
KODEX 200	127	3,375
롯데쇼핑	8	3,01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에이블씨엔씨	20	1,585
파라다이스	70	1,192
에스엠	22	908
컴투스	14	681
크로바하이텍	84	569
게임빌	5	536
코오롱생명과학	6	485
포스코엡텍	40	461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2,787	4,222,664
LG전자	41,698	3,010,610
POSCO	7,751	2,712,884
OCI	9,421	1,563,882
현대차	4,394	1,008,310
NHN	3,134	739,661
SK하이닉스	27,216	713,067
오리온	592	581,093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6,176	757,782
서울반도체	5,268	128,007
에스엠	1,516	61,836
덕산하이메탈	2,713	58,051
에이블씨엔씨	555	44,982
다음	463	42,543
게임빌	372	42,354
차바이오텍	3,799	34,344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의약품	197 화학	-5,055	
의료정밀	117 운수장비	-4,743	
비금속광물	71 전기,전자	-4,117	
KODEX 200	844 LG전자	-2,833	
SK하이닉스	720 대우조선해양	-2,799	
안국약품	520 한화생명	-2,262	
한솔테크닉스	273 외환은행	-2,000	
SG세계물산	260 두산인프라코어	-1,804	
KEC	250 한화케미칼	-1,529	
한진중공업홀딩스	205 KT	-1,506	
한솔CSN	194 KB금융	-1,393	
슈넬생명과학	190 기업은행	-1,372	
GS	180 LG디스플레이	-1,22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순 감	
통신서비스	1,752 제약	-2,862	
일반전기전자	255 반도체	-530	
종합건설	224 오락,문화	-270	
SK브로드밴드	1,760 셀트리온	-3,644	
안국약품	520 서울반도체	-477	
대아티아이	329 파라다이스	-252	
서한	270 인터파크	-239	
하츠	227 KG이니시스	-184	
인프라웨어	203 아가방컴퍼니	-173	
지엔코	179 루멘스	-160	
엘비세미콘	169 KG모빌리언스	-153	
SM C&C	150 미래나노텍	-149	
알에프텍	124 태웅	-110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2/11(화)	12/12(수)	12/13(목)	12/14(금)	12/17(월)
외국인	15,504.0	2,371.3	1,175.3	199.4	205.9	532.9	76.2	157.8
기관계	3,454.9	-464.6	-82.4	80.9	55.9	-23.9	-84.0	-113.3
(투신)	-5,189.3	-344.9	-183.6	26.1	-28.2	22.4	-120.6	-82.4
(연기금)	3,586.4	197.7	0.4	113.3	-18.1	-5.5	-30.5	-59.0
(은행)	424.6	-74.1	-50.7	-0.5	-13.8	-12.6	-4.1	-19.7
(보험)	2,733.8	76.6	94.4	10.8	-11.8	176.8	-22.5	-56.5
개인	-14,048.6	-1,780.7	-1,022.8	-280.9	-244.7	-485.9	15.0	-26.4
기타	-4,910.3	-126.0	-70.1	0.6	-17.1	-23.1	-7.1	-18.1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12/10(월)	12/11(화)	12/12(수)	12/13(목)	12/14(금)
KOSPI	1,682.77	2,051.00	1,825.74	1,957.42	1,964.62	1,975.44	2,002.77	1,995.04
고객예탁금	12072.0	14068.5	17680.2	16897.4	17044.6	17300.7	17717.4	17222.5
(증감액)	2735.7	1996.5	3611.7	-192.7	147.2	256.1	416.7	-494.9
(회전율)	52.6	51.5	34.2	30.6	36.2	35.7	41.7	33.4
실질예탁금 증감	-292.5	-3502.6	3775.5	-290.2	-123.5	252.9	166.7	-715.5
신용잔고	4359.5	5938.3	4476.3	4172.5	4135.6	4125.6	4104.8	4085.2
미수금	240.2	192.3	187.7	136.6	125.1	114.2	133.8	114.3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12/10(월)	12/11(화)	12/12(수)	12/13(목)	12/14(금)
전체 주식형	94,900	-8,124	-1,310	-143	-96	-168	-207	-313
(ex. ETF)		-10,504	-970	-106	-52	-123	-146	-213
국내 주식형	68,519	-4,579	-1,079	-106	-75	-143	-174	-302
(ex. ETF)		-6,959	-737	-70	-31	-97	-113	-202
해외 주식형	26,381	-3,545	-231	-37	-21	-26	-33	-11
(ex. ETF)		-3,545	-233	-37	-21	-26	-33	-11
주식 혼합형	10,163	-1,608	-122	-26	-8	-9	-19	-17
채권 혼합형	19,374	1,304	-56	-16	43	-11	-13	-16
채권형	46,674	2,144	55	82	7	35	-24	-254
MMF	72,906	18,065	3,901	-646	-896	-44	1,618	1,93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2/11(화)	12/12(수)	12/13(목)	12/14(금)	12/17(월)
한 국	13,795	2,053	3,115	185	192	496	74	59
대 만	4,941	1,729	2,168	302	342	153	-12	-3
인 도	21,994	1,893	1,382	260	556	-	-	-
인도네시아	1,606	-94	567	-12	12	67	53	-
태국	2,133	384	500	68	143	32	12	-
남아공	-460	575	257	2	105	152	-	-
필리핀	2,273	108	-2	7	-7	-3	-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1년	12/10(월)	12/11(화)	12/12(수)	12/13(목)	12/14(금)	12/17(월)
회사채 (AA-)	4.21	3.27	3.27	3.27	3.30	3.31	3.31
회사채 (BBB-)	10.01	8.76	8.76	8.76	8.79	8.80	8.81
국고채 (3년)	3.34	2.83	2.83	2.83	2.86	2.87	2.88
국고채 (5년)	3.46	2.96	2.97	2.96	2.99	3.00	3.02
국고채 (10년)	3.79	3.09	3.09	3.10	3.14	3.15	3.16
미 국채 (10년)	1.88	1.62	1.65	1.70	1.73	1.70	-
일 국채 (10년)	0.99	0.70	0.71	0.70	0.73	0.74	-
원/달러	1,151.80	1,079.00	1,076.70	1,075.00	1,073.00	1,074.00	1,072.50
원/엔	1,492.00	1,311.00	1,308.00	1,301.00	1,285.00	1,284.00	1,278.00
엔/달러	77.24	82.30	82.37	82.64	83.55	83.70	83.94
달러/유로	1.29	1.29	1.29	1.29	1.30	1.31	1.31
DDR3 1Gb (1333MHz)	0.64	0.64	0.64	0.64	0.65	0.66	-
NAND Flash 16Gb (MLC)	2.81	1.83	1.86	1.86	1.86	1.88	-
CRB 지수	305.30	293.22	293.84	295.19	292.70	294.89	-
LME 지수	3,306.0	3,529.9	3,514.9	3,533.6	3,514.7	3,520.2	-
BDI	1,738	937	900	826	799	784	-
유가 (WTI, 달러/배럴)	98.83	85.56	85.79	86.77	85.89	86.73	-
금 (달러/온스)	1,566.80	1,714.40	1,709.60	1,717.90	1,696.80	1,697.0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기초자산	최근월물	베이스스			거래량	미결제약정	
	KOSPI200	1303월물	이론	마감	평균		증감	
12월 11일	260.12	259.25	-0.71	-0.02	0.11	6,861	53,970	32,043
12월 12일	261.67	261.80	-0.71	0.33	0.32	13,074	79,052	25,082
12월 13일	265.79	264.25	-0.70	-0.89	0.12	56,058	94,949	15,897
12월 14일	264.56	264.50	-0.73	-0.06	0.16	149,199	100,457	5,508
12월 17일	262.76	263.30	-0.79	0.54	0.65	138,853	102,672	2,215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외국인	개인	기관종합					
			증권	투신	은행	보험	기금	
12월 11일	1,821	-1,183	-721	-805	-600	-6	532	0
12월 12일	5,105	-1,091	-4,050	-1,803	-739	114	-151	0
12월 13일	1,833	2,735	-4,417	-2,197	-744	123	21	0
12월 14일	2,110	-571	-730	1,954	-2,183	-20	-42	0
12월 17일	-1,947	1,529	506	946	-242	22	-45	6
누적포지션	163	958	-224	2,900	-2,425	2	-87	-620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프로그램 전체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차익거래잔고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12월 11일	777	1,036	258	699	962	263	79	74	-5	6,041	10,354
12월 12일	732	1,161	428	715	960	245	18	200	183	6,005	10,503
12월 13일	1,630	2,543	913	1,045	1,720	674	585	823	238	5,860	10,598
12월 14일	682	1,044	362	644	827	183	38	217	179	5,833	10,681
12월 17일	641	1,102	461	595	829	235	47	273	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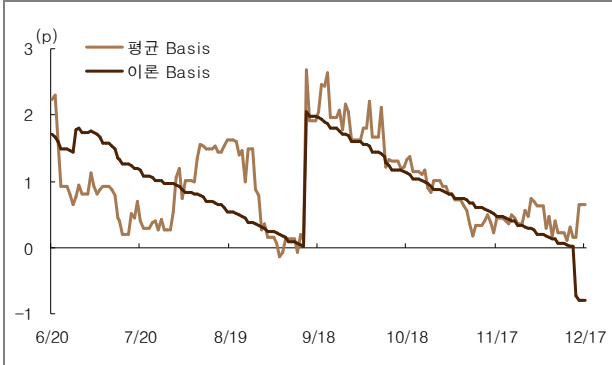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가격(P))

콜옵션				행사가격	풋옵션			
변동성	미결제증감	거래량	현재가		현재가	거래량	미결제증감	변동성
14.94	2,052	66,442	0.22	277.50	15.50	74	17	5.00
14.88	3,014	88,789	0.37	275.00	13.25	299	168	5.00
14.95	3,228	101,188	0.62	272.50	11.00	204	98	5.00
15.16	4,843	118,794	1.02	270.00	8.90	1,289	417	5.00
15.46	4,217	107,474	1.61	267.50	6.85	2,556	237	5.00
15.85	-1,666	54,975	2.43	265.00	5.20	8,464	210	9.08
16.33	794	12,000	3.50	262.50	3.80	14,442	1,097	10.40
17.19	571	5,923	4.90	260.00	2.71	106,517	956	11.37
18.41	168	1,320	6.60	257.50	1.88	83,539	2,197	12.13
19.76	115	425	8.50	255.00	1.31	88,673	1,248	12.97
21.24	275	785	10.55	252.50	0.91	66,597	1,594	13.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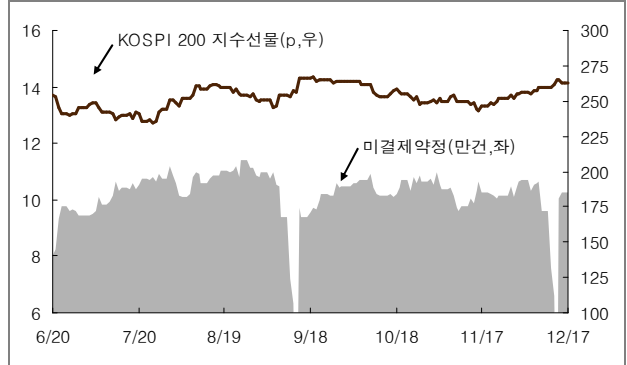
■ 주요 지표

이론 Basis & 평균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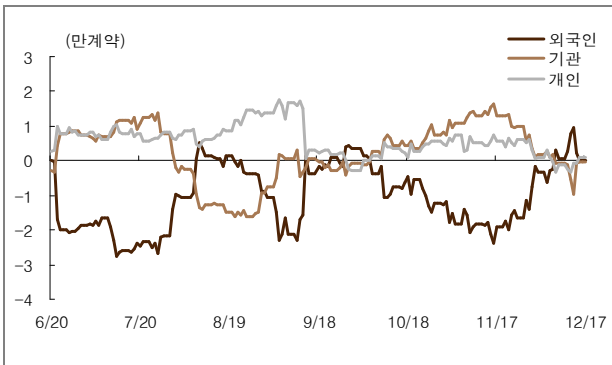
- 평균 Basis: 0.65 (전 거래일 대비 0.49 상승)
- 이론 Basis: -0.79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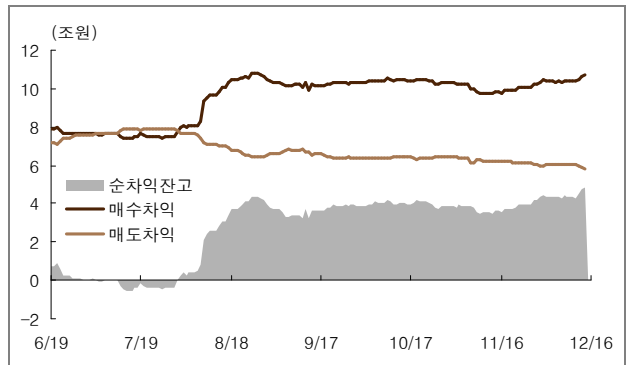
- 미결제약정: 전 거래일 대비 2,215 계약 증가한 102,672 계약
- 선물가격(263.30): 전 거래일 대비 1.20p 하락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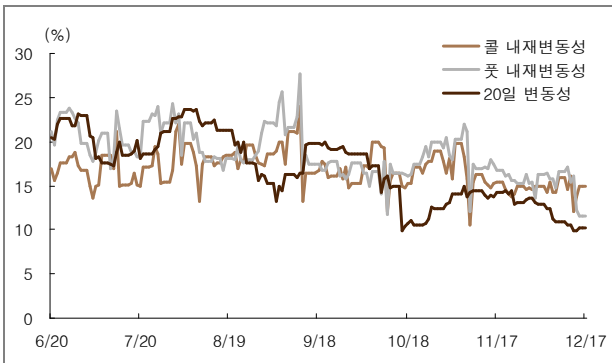
- 외국인: 1,947 계약 순매도
- 기관: 500 계약 순매수 / 개인: 1,529 계약 순매수

차익거래 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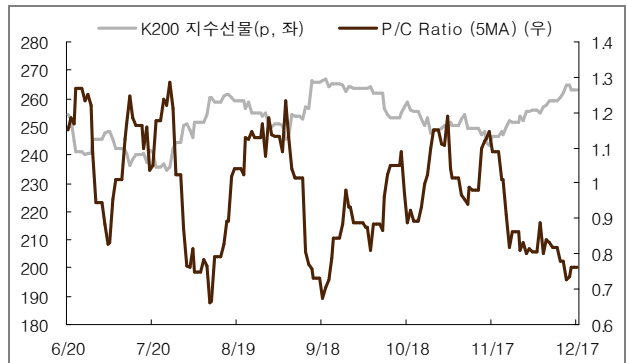
- 차익거래: 2,261 억원 순매수
- 비차익거래: 2,345 억원 순매수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14.9% / 풋 11.6%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10.31% 기록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0.76 기록

*** 데이터 불연속성은 선물 12년 12월물이 최근월물로 거래된 데 따른 것임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10	11	12	13	14
韓> 11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0.2%, n/a, 0.2%) 유럽> 12월 섀넥스 투자자대지수 (-16.8, -16.9, -18.8) 中> (12/9) 11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2.0%, 2.1%, 1.7%) (12/9) 11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2.2%, -2.0%, -2.8%) (12/9) 11월 산업생산 YoY (10.1%, 9.8%, 9.6%) (12/9) 11월 소매판매 YoY (14.9%, 14.6%, 14.5%) 11월 무역수지 (\$19.63B, \$26.85B, \$31.99B) 11월 수출 YoY (2.9%, 9.0%, 11.6%) 11월 수입 YoY (0.0%, 2.0%, 2.4%) 日> 10월 경상수지 YoY (-29.4%, -59.0%, -68.7%)	美> 11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87.5, 92.5, 93.1) 10월 무역수지 (-\$42.2B, -\$42.7B, -\$41.5B) 中> 11월 신규 위안 대출 (522.9B, 550.0B, 505.2B) 11월 통화공급 M2 YoY (13.9%, 14.1%, 14.1%) 日> 11월 통화공급 M2 YoY (2.1%, 2.3%, 2.3%)	韓> 11월 실업률 (3.0%, 3.1%, 3.0%) 10월 통화공급 M2 YoY (0.2%, n/a, 0.1%)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6.2%, n/a, 4.5%) 11월 수입물가지수 YoY (-1.6%, -1.0%, 0.4%) 11월 월간 재정수지 (-\$172.1B, -\$150.0B, -\$137.3B) FOMC 금리 결정 (0.25%, 0.25%, 0.25%) 유럽> 10월 유로권 산업생산 YoY (-3.6%, -2.4%, -2.3%) EU 은행감독기구 설립 합의	韓> 금통위 금리결정 (2.75%, 2.75%, 2.75%)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4.3만, 36.0만, 37.0만) 11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1.5%, 1.8%, 2.3%) 11월 소매판매액지수 MoM (0.3%, 0.5%, -0.3%) 10월 기업재고 MoM (0.4%, 0.4%, 0.7%) 유럽> EU 정상 회담 그리스 차기 구제금융 지급 합의	韓> 11월 수출물가지수 YoY (-5.5%, n/a, -5.2%) 11월 수입물가지수 YoY (-7.6%, n/a, -6.4%) 美> 11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1.8%, 1.9%, 2.2%) 11월 산업생산 YoY (1.1%, 0.3%, -0.4%) 하원 회기 마감 유럽> 3분기 유로권 고용 YoY (n/a, n/a, -0.6%) 11월 유로권 CPI YoY (n/a, 2.2%, 2.2%) 中> HSBC 플래시 PMI 제조업 (50.9, 50.8, 50.5)
17	18	19	20	21
美> 12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n/a, -1.00, -5.22) 오바마 대통령 휴가 일정 시작 日> (12/16) 조기 총선 실시	美> 12월 NAHB 주택시장지수 (n/a, 47, 46) 中> 11월 실질 FDI (미확정) (n/a, -3.1%, -0.2%)	韓> 제18대 대통령선거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n/a, n/a, 6.2%) 11월 주택건설착공 MoM (n/a, -2.4%, 3.6%) 11월 건축허가 MoM (n/a, 0.8%, -2.7%) 유럽> 10월 유로권 경상수지 SA (n/a, n/a, 0.8B)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36.0만, 34.3만) 12월 필라델피아 연준지수 (n/a, -3.0, -10.7) 10월 주택가격지수 MoM (n/a, 0.3%, 0.2%) 11월 기존주택매매 MoM (n/a, 2.3%, 2.0%) 11월 경기선행지수 MoM (n/a, -0.2%, 0.2%) 日> BOJ 정책금리 결정 (n/a, 0.10%, 0.10%)	美> 11월 개인소득 MoM (n/a, 0.3%, 0.0%) 11월 개인소비지수 MoM (n/a, 0.4%, -0.2%) 의회 회기 마감
24	25	26	27	28
美> 11월 내구재 주문 MoM		韓> 11월 할인점 매출 YoY (미확정) (n/a, n/a, -6.6%) 11월 백화점 매출 YoY (미확정) (n/a, n/a, -0.4%) 12월 소비자대지수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10월 S&P/CS 주택가격지수 MoM	韓> 1월 BSI 제조업 1월 BSI 비제조업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2월 소비자 기대지수 11월 신규주택매매 MoM 中> 11월 선행지수 (미확정)	韓> 11월 경상수지 11월 산업생산 YoY 11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MoM 美> 11월 미결주택매매 MoM 日> 11월 실업률 11월 국내 CPI YoY 11월 산업생산 YoY 속보치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이전치는 수정 값 미반영분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